KCRP 30주년 기념식 '종교 화합' 자리로

29일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

30주년을 맞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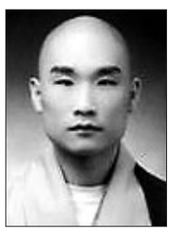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영주, 이하 KCRP)는 6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서 'KCRP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2016이웃종교화합대회 개막식'을 개최한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총 7대 종교 수장들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시한 내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30주년 기념식은 '과거(過)·현재(現)·미래(來)'를 테마로, 오프닝 영상·인사말·축사·드로잉 퍼포먼스·30주년 기념 약속의 나무 세레모니·오찬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한국종교계가 이해와 화합,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큰 뜻을 모으는 이웃종교화합대회 개막식도 함께 개최된다.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KCRP는 7~8월 각 종단 시설서 이웃종교를 체험하는 '이웃종교스테이', 9월 '전국종교인화합마당-소통으로 하나 되는 토크콘서트'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박아름 기자**

적조사 주지 탄국, 청련사 주지 혜조 임명

조계종, 6월 22일자로


탄국 스님


혜조 스님

조계종 직할교구 말사인 서울 적조사 신임주지에 탄국 스님, 강화 청련사 신임주지에 혜조 스님이 6월 22일 임명됐다.

적조사 신임주지 탄국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구족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총무원 호법과장을 역임했다.

청련사 신임주지 혜조 스님은 정인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구족계)했다. 삼선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청룡암 주지, 지산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대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기본교육기관 최초 '4년 단기출가'

중앙승가대, 출가문턱 낮추기 위해 교육과정 마련
정규대학과정 이수 후 출가 선택 'UNI-출가' 주목
청소년·학인 함께하는 2박 3일 'UNI-stay'도

중앙승가대가 승가 기본교육기관 중 최초로 '4년 단기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출가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UNI-출가'를 새롭게 개설했다. 'UNI-출가'는 중앙승가대서 4년간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가생활을 경험하고, 졸업 후 구족계를 받거나 사회전문직업인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단기출가 제도다.

지난 6월 13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으며, 신청자들은 본교 내 위원회를 통해 은사를 결정한 뒤 2016년 9월부터 6개월간 행자생활을 시작한다. 행자교육은 은사 스님과 중앙승가대가 병행해 실시하는데, 향후엔 중앙승가대가 독자 운영하는 행자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5급 승가고시를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2017년 3월 정식 입학, 중앙승가대서 기본교육 4년을 이수하게 된다. 등록금 및 4년 학비, 기숙사비는 전액 면제다.

가장 큰 특징은 졸업 후 반드시 구족계를 수지할 필요가 없단 것이다. 즉 UNI-출가자들은 4년 간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구족계 수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졸업 후 구족계 수지가 의무화였던 것과 차별적인 것으로,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입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기존 단기출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한 달·100일 등 실제 출가로 이어지기엔 비교적 짧은 기간이란 점을 보강, 출가자들이 예비승려 신분으로서 삶을 살며 보다 현실적으로 출가를 고민할 수 있단 점이 주요 골자다.

9월 행자 교육 시작 후
2017년 3월 정식 입학
졸업 후 구족계 수지 선택
출가부담 감소, 인재양성 기대

이와 관련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선응스님은 "동남아 불교계엔 3·4년 단위의 단기출가제도가 비교적 활성화 돼 있다"며 "4년이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출가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하는 한편, 중앙승가대 시설과 교수진을 활용해 전문적인 행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UNI-출가가 실제 출가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불교계 인재 양성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김 교수는 "졸업생들은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더라도 종단 및 전국 사찰 종무원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출가가 '선득도-후교육'으로 이뤄지는 점을 보완, '선교육-후득도'로 변화시켜 승려들의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승가대는 'UNI-stay'도 마련한다. 'UNI-stay'는 청소년과 학인 스님이 2박 3일 간 함께하며 인성을 함양하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취지다. 7월 28~30일 진행되며, 참가자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스님들과의 승가 Uni 캠퍼스 스토리'란 주제로, △스님들의 대학생활 △청소년에게 GO하다 '비정상회담' △놀이체험 'LTE급 겁나 빠른 런닝맨' △신나는 대동마당 '佛금이야~佛놀이야~' 등이 진행된다.

접수는 중앙승가대 홈페이지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이메일(sanghaswelfare@gmail.com)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참가비 1만원. (031)980-7715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설법으로 通하고 싶다면 오세요

BTN, '통하는 설법학교' 개강…
조계종 교육원 인증연수

7월 20일까지 선착순 30명
설법이론과 스피치실기 강의


김응철 교수


고명석 선임연구원


김문주 아나운서


백도수 교수

BTN불교TV(대표 성우)는 스님들의 설법역량을 길러줄 '통(通)하는 설법학교'를 개강한다.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법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강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방배동 BTN스튜디오에서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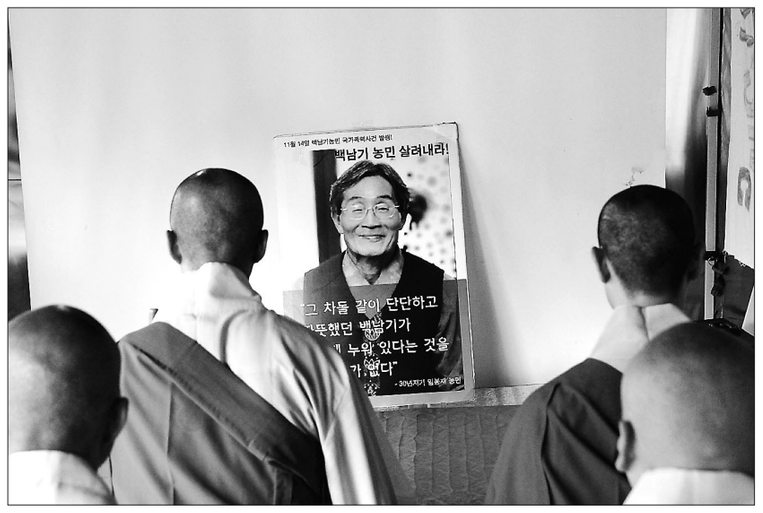
첫 강의는 능인대학원대학교 백도수 교수가 붓다의 설법을 우리시대에 맞게 이해하고 전법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청중과 법회 성격에 따른 설법주제를 잡는 노하우도 전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월간 〈법회와 설법〉의 집필을 맡은 고명석 조계종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설법의 기초가 되는 문안과 원고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설법학교의 실기는 BTN뉴스로 불자들에게 익숙한 김문주 아나운서가 맡는다. 김문주 아나운서는 불교계 행사와 포교사단 연수, 새터민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스피치랩 전문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불교TV 스튜디오에서 실습형태로 진행되는 스피치 특강은 강사와 수강생이 직접 1대 1 모니터링 형식으로 지도한다. 또한 불교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소통의 기술을 중심으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강의한다.

BTN 문화포교국 관계자는 "불교TV가 불교계 대표방송의 역할 고민하던 중 설법강좌를 해달라는 스님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미디어 시대에 맞게 설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원고작성과 스피치 실습을 중심으로 엄선된 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02)3270-333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6월 17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후문에 위치한 백남기 대책위원회 농성장서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5일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2차 민중총궐기 대회 '평화의 꽃길 기도회'에 참가한 후 백 씨의 병실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사회노동위가 백남기 씨 농성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불 의식을 마친 스님들은 "그동안 나서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 백남기 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진각종, 자성동이 풋살대회 연다

8월 9일~11일까지 위덕대서… 고교생 대상 자원봉사단 모집도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위덕대서 제11회 통리원장배 자성동이·중등부 풋살대회를 연다.

풋살대회 운영위원회는 6월 21일 대전 신덕심인당서 2차 운영위원회의를 갖고 참가신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회에는 자성동이부 △서울교구 3팀 △대구교구 3팀 △부산교구 1팀 △대전교구 2팀 △전라교구 1팀 △경주교구 2팀 △포항교구 2팀 등 총 14팀과 중등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경주교구 각 1팀 및 포항교구 2팀 등 총 7팀이 참가한다.

한편 비로자나청소년협회는 그간 풋살대회에 참가한 자성동이·중등부 선수들이 고교 진학 후 종단행사에 참여율이 낮다고 판단해 '풋살대회 청소년 자원봉사단' 모집을 통해 자신이 뛰던 무대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대회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풋살대회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전국 심인당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봉사단으로 선정되면 풋살대회 동안 경기장 자원봉사, 경기기록관 및 시간 관리자, 심판(부심), 이벤트 경기 진행 및 참여, 팀별 인솔담당 등을 담당한다. 봉사활동시간 제공(사전에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의 특혜도 주어진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화엄경' 진수를 만나고 싶다면?

서울불학승가대, 지안 스님 강독 청강생 모집

8월 19일까지 학생 모집
재가자도 청강 참여 가능

한국불교 대강백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에게 〈화엄경〉 강독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조계종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오는 8월 30일 개강하는 '지안 스님의 〈화엄경〉 강설 법석'을 연찬할 청강생을 모집한다"고 6월 22일 밝혔다.

강의는 8월 3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오후 6~9시에 진행되며, 장소는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이다. 교재는 무비 스님의 〈화엄경〉현토본을 사용한다.

이번 〈화엄경〉강독은 스님뿐만 아니라 불교 공부에 목마른 재가 불자들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규학인 스님들은 등록금 50% 할인도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며,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과 이메일(education@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원은 "지안 스님의 〈화엄경〉 강독은 설법과 포교활동을 하는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이며, 재가자도 스님들과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면서 "품격 높은 불교강의를 통해 불교사상의 진수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2011-1875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